

# 장흥군 “오늘은 육포데이”

## 한우·가공식품 소비 활성화 오늘 토요일시장 행사

“육포데이”를 아시나요?  
장흥군은 3일 장흥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정남진 장흥한우 소비촉진과 가공식품 소비활성화를 위해 6월4일을 ‘육포 데이(day)’로 정해 홍보에 나섰다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육포데이 홍보를 위해 장흥군은 지난 1일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특설 무대와 광장에서 ‘육포 데이 선포식

및 무료 육포 시식회, 육포 할인 행사’를 했다.  
장흥군은 한우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육포공장을 준공해 연간 14t의 육포를 생산하고 있다.  
또 전국 농·축협 중 유일하게 육포공장을 운영하는 장흥축협은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정남진

장흥한우 육포를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장흥축협 한 관계자는 “한우 소비형태를 다양화해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포 데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한우소비 촉진을 한몫을 담당해 한우산업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알맞이 익어가는 ‘여름’** 장흥군 봉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농민들이 막 수확한 수박을 나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봉산한미음수박작목반은 비파괴당도측정을 통해 12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수박만을 선별 수확해 출하하고 있다. /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담양 농가 효자 ‘딸기’

## 잼으로 가공해 2차 수익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수확철이 끝난 후 출하하기 힘든 딸기를 활용해 딸기잼 가공 지원에 나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딸기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딸기잼 가공 교육을 실시하고 딸기잼 제조를 지원해 현재까지 71농가에서 약 8t의 딸기를 잼으로 가공 제조했다.  
‘진공 저온 농축법’(사진)으로 만든 딸기잼은 기존의 방법인 고온으로 만든 잼과 비교해 볼 때 색, 향, 맛이 잘 보존된 점이 특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수확철이 지난 딸기를 활용해 고품질의 잼을 제조함으로써 농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에서는 1190 농가가 358ha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전국 3대 딸기 주산지인 연간 1만4000t을 생



산, 58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담양의 대표적인 효자 작목이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고 피로회복이나 체력증진에 효과적이며, 섬유질과 펙틴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한다.  
장풍환 담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은 “딸기잼 제조 지원에 이어 오디, 포도 등을 활용한 잼 제조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농업인들의 농의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완도에서 훈훈한 주말

## 강진 아동센터-삼성, 다문화가정 초청 가족캠프

강진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는 지난 1일과 2일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바자율주말가족프로그램인 ‘함께하고, 함께 가요’를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바자율은 울타리라는 우리말로 다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번 행사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적었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화령기 가정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16 가정에서 55명이 신청했다.  
행사에 참가한 16 가정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가족봉사동아리 회원 15

명은 래프팅, 서바이벌, 캠프파이어, 도미노 쌓기 등을 함께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아동들에게 줄 따뜻한 선물 교환 시간도 마련해 훈훈함이 더해졌다.  
한편 강진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의 꿈이 존중받는 마을을 함께 꿈꿔나간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문화 아동들을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진군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사)위스타트 운동본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남도 문화유산 알리기

## 도, 혁신도시 임직원·가족 초청 문화탐방

전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80여 명을 대상으로 남도문화탐방을 실시하는 등 남도의 우수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문화탐방은 전남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전환해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탐방은 최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해 보성늪차밭, 울포해수욕장, 혁신도시 홍보관, 나주 황토돛배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남도문화탐방에 참가한 한 임직원은 “이번 문화탐방으로 남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문화유산, 정갈한 음식에 완전 매료돼 전남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설립된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남도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주기자 bungy@kwangju.co.kr

# 전북



# ‘고창 갯벌’ 생태관광 중심으로

## 갯벌생태지구 선정...진도 등 전국 8곳 휴양벨트 조성

고창군이 정부의 갯벌생태지구로 선정돼 서해안의 생태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창을 포함해 동해, 영덕, 거제, 진도 등 8곳을 동서남해안의 지역 거점으로 선정해 휴양·체험·생태벨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안권별 핵심사업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개발 공약인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해 해안권 거점지역별로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등 해안권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여가생활 공간을 넓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거점지역별로 본격적인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  
특히 서해안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고창군에는 서해안의 역사·문



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갯벌·철새 등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가 조성된다. 2010년 람사르습지 지정된 고창갯벌은 생태지구를 조성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거점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리면 금령리와 심

원면 일원(87만955㎡)에 총사업비 233억원을 투입해 탐방로, 진입로,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강수 군수는 “7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활용해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구시포(사진) 국가어항 건설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다가올 새만금 시대와 연계해 서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단신

## 전북 공동모금회, 보훈가족 120세대에 1200만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저소득 보훈 가족을 찾아 사랑을 나눴다.  
사랑의열매는 이날 보훈 가족 중에서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20세대를 추천받아 성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을 받은 가정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홀로 생활하는 노인 단독세대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성 사랑의열매 회장은 “보훈 가족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고창군, 5개 읍면에 함께 17만마리 방류

고창군은 토산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고창읍 소재 월계제를 비롯해 관내 5개 읍면 6개 수면에 함께 16만8000마리를 방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참깨는 잡식성으로 하천에 서식하면서 여러 번 탈피 과정을 거쳐 2년 후 6~7cm로 성장

하게 된다. 함께 외에도 봉어·잉어·메기·동자개 등도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군은 2004년부터 내수면 어류 방류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남원시, 시내 60곳 폐가전제품 수거함 설치

남원시는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를 위해 이달부터 시내 60여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거함은 핑크색 철제제품으로 눈에 잘 띄어 배출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제작됐다. 수거함 설치로 폐휴대폰, 라디오, CD플레이어, MP3, 전기면도기 등 소형 폐가전제품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폐가전제품이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면서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폐기되고 있다”며 “자원 재활용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전북교육청, 재해 안전사고 예방 시설 점검

전북도교육청은 3일부터 폭우를 비롯한 여름철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21일까지 폭우 취약시설, 노후·위험시설, 화재 취약시설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학생 수련시설, 교육연

수원, 체험 학습장, 학생 야영장, 학교 공사장, 교내 재해 취약시설 등이다.  
도교육청은 풍수해를 일으킬 위험요인을 찾아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응급복구, 출입통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안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추억 잡으러 오세요

무주 반딧불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3일 무주읍내 남대천에서 송어를 잡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무주군은 9일까지 계속되는 축제기간동안 잡은 송어를 현장에서 즉석구이를 해먹도록 배려했다.  
(무주군 제공)

# LED 전문가들 10월 익산서 모인다

## ‘2013 LED 산업포럼’

LED(발광다이오드) 관련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행사인 ‘2013년 LED 산업포럼’이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올해 LED 산업포럼을 익산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전폭이 LED관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

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전민송이 국회의원회관(10월25일~11월3일)에 원광대 등지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LED관련 산·학·연·관이 LED관련 기술, 정책, 산업 경향을 공유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가 3회째다.  
지난해 2회 포럼에서는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을 비롯한 LED산업인 500여명이 참여해 전문가 발표 및 토

론 등으로 LED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합방안, LED조명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그간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한 LED 농생명사업 성과와 도내에서 생산되는 LED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